

# 梗攝考

權 在 善

## I. 序

III. 傳承漢字音의 梗攝 字音

III. iəŋ의 轉寫音

IV. iaŋ의 轉寫音

V. 介母 i의 轉寫와 n韻尾의 消失 時期

## I. 序

梗攝에 대해서는 內外學者間에 많은 研究가 있으며 우리나라 漢字音의 梗攝에 대한 考察도 이미 많이 行하여졌다.<sup>1)</sup>

本稿에서는 考察의 角度를 달리하여 漢音 轉寫面에서 梗攝의 傳承漢字音의 諸樣相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漢字音을 考察하는 경우 外國音 轉寫에 있어서의 對應關係가 充分히 考慮되지 못한 感이 있는데, 實上 이 問題는 제일 먼저 解明되어야 할 問題이고 우리나라 漱字音 考察에서 根本이 되는 問題라고 본다. 傳承漢字音도 그것이 受容될 當時는 漱音의 轉寫音이므로 이 경우에서例外가 될 수 없다. 이러한 轉寫面의 問題는 梗攝에 限한 것만도 아니다.

※ 本稿는 74年度 國語國文學會 全國大會에서 口頭發表한 要旨를 修正 補完한 것인데, 實은 筆者の 博士過程 마지막, 學期의 課題로 研究執筆된 것이다. 이 程度로 漱字音 工夫를 할 수 있게 指導해 주신 段昌均 博士님께 感謝를 올리며, milliseconds 外國에서 論文과 책을 구해 주고, 漱字音 研究는 梗攝으로부터 始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助言해 준 Princeton大學의 橋本萬太郎 博士님께도 아울러 感謝를 드린다.

1) H. Maspero, B. Karlgren, 陸志韋, 橋本萬太郎……等, 中古漢音을 再構한 學者는 거의 다가 梗攝에 言及했으며 그 중에서도 梗攝 自體에 대한 研究로서는 橋本 博士가 가장 깊이 考察한 것으로 생각한다. 本稿는 橋本 博士의 理論을 土臺로 하였다. 國內學者の 研究로서도 다음 같은 것이 있다.

音韻體系가 다른 漢音을 國音으로 轉寫할 때 正確한 音으로 轉寫되지 못할 것은 누구나 아는 事實로 우리나라 漢字音을 研究한 學者들은 여러 가지 問題點과 對應關係를 밝히고 있다.<sup>2)</sup>

그러나 中世國語 音韻에 없었던 前舌母音 e ε φ y등의 漢音이 國音으로 어떻게 轉寫되었는가를 具體的으로 考察한 學者는 없다. 漢音 音韻에 이러한 音이 없었다면 모르거나와 分明히 存在했다면—여러 學者의 中古漢音 再構音에도 있고 漢音을 轉寫한 外國音이나 現代 中國方言에도 分明히 存在함—반드시 이들의 國音 轉寫에 있어서의 對應關係가 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e음의 轉寫에는 一定한 對應關係를 갖고 있다는 事實을 筆者는 發見할 수 있는데, 이러한 事實은 注目할 만한 事實이다. 外國音 轉寫에 다음 같은 對應例를 볼 수 있다.

#### 捷解新語의 日本音 e의 轉寫<sup>3)</sup>

| (假名) | (한글 表記) |      |
|------|---------|------|
| へ    | 페       | 페    |
| け    | 겨(껴)    | 계(께) |
| せ    | 셔(씨)    | 세(쎄) |
| め    | 며       | 메    |
| え    | 여       | 에    |
| て    | 뎌(띠)    | 데(떼) |
| れ    | 려       | 례    |
| ね    | 녀       | 네    |
| ゑ    | 여       | 예    |

#### 八思巴의 轉寫와 四聲通解의 蒙音轉寫<sup>4)</sup>

朴炳采：古代國語의 研究 `音韻篇pp 163~172

文叢奎：梗概의 韻母論(全北大學校論文集 12)

姜信沉：四聲通解研究 pp 89~100

2) 俞昌均 博士님께서는 그의 東國正韻研究에서 韵母의 等韻과 東國正韻의 國音母音間に 一定한 對應關係가 있음을 밝혀 내셨다.

俞昌均：東國正韻研究 研究編 參照

3) 捷解新語의 日本音轉寫에 대한 考察은 金完鎮博士가 이미 行한 바 있다.

金完鎮：捷解新語에서의 日本語 轉寫에 대하여. (國語音韻體系의 研究)參照

4) 八思巴字의 釋音은 다음 論文에 依한다.

龍果夫：八思巴字與古漢語(唐虞譯)

| (八思巴)   | (四聲通解) |
|---------|--------|
| 耿 geiŋ  | 경      |
| 康 geiŋ  | 경      |
| 經 geiŋ  | 경      |
| 罄 k'eiŋ | 첨      |
| 邢 heiŋ  | 형      |
| 興 heiŋ  | 행      |
| 季 gei   | 계      |
| 蔚 gei   | 계      |
| 奚 hei   | 혜      |

陸志韋의 推定音과 四聲通解의 正音<sup>5)</sup>

| (陸氏 推定音) | (四聲通解 正音) | (例)    |
|----------|-----------|--------|
| (先) iɛn  | 엔         | 氈韻蟬然扇天 |
| iuɛn     | 冤         | 阮宛專川傳  |
| (山) ie   | 여         | 哲撤詔舌熱  |
| iue      | 尉         | 決欲掘月雪血 |
| (塙) iem  | 염         | 占擔閃蟾   |
| (遮) iue  | 尉         | 瘞靴     |

※ 漢音 ie의 轉寫音 iɛ는 iɛ>iɛ로 解釋할 수 있다.

以上의 例에서 外國音 特히 漢字音의 e ε는 國音 여(iɛ)로 規則的으로 對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國語의 경우, 中世語에 없었던 前舌母音 e ε φ y의 發生은 다음과 같은 間音化에서 이루어진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 (中世語)  | (現代語)   |
|--------|---------|
| 애 (əi) | → 애 (e) |
| 애 (ai) | → 애 (ε) |
| 외 (oi) | → 외 (φ) |
| 위 (ui) | → 위 (y) |

5) 陸志韋의 推定音이란 14世紀에서 17世紀에 걸치는 北方音系의 韻書인 周德清의 中原音韻(1324), 蘭茂의 韵略易通(1442), 畢拱宸의 韵略匯通(1642) 등의 推定音을 말한다.

a) 陸氏의 推定音과 四聲通解音의 比較는 이미 姜信沆博士가 行한 바 있는데, 本稿의 例는 여기에 기用引하였다.  
姜信沆 : 四聲通解의 研究 參照

그런데, *i*(여)와 *e*의關係도 *i*母音位置의 前後 差異뿐이지 *əi*>*e*의 경우와 같은 *i*와 *e*의 間音으로 *e*에 對應한 것으로 解釋된다.

- (A)  $\partial i \sim e$   
 (B)  $i\partial \sim e$

그러나 (B)는 *iə*와 *i*가 同音韻으로 解釋되는 中國音의 경우와 *iə*는 *i*로 實現된다는 E·G Pulleyblauk의 2 more說<sup>6)</sup> 과는 맞지 않다. 그러나, 國語에 있어서는 「여～어」의 對應이 原則的인 것으로 「여」를 音韻의 으로 이」로 解釋할 수는 없다. 이런 事實은 國語와 中國語間에 「*iə*」음이 音聲이나 音韻上에 어떤 差異가 存在하기 때문이겠다. 四聲通解 凡例의 中國音에 對한 深重說은 이러한 事情을 염보게 한다.

四聲通解所收 四聲通攷 凡例)

이 深重說에 依하면 中國音 i는 ㅣ-(iθ)<sup>7</sup> 이니 ie와 가까운 소리겠다.

iθ[i]~iθə[iə]

그러므로, 國音 ie는 中國音 ie와는 音聲上 또는 音韻上으로 性格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

iə와 əi가 다 e음에 대응될 수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여」(iə)와 「예」(əi)의 글자 自體의 性格으로 살펴보면 이 兩者的 差異는

6) E. G. Pulleyblank는 Karlgren이 再構한 介母 i는 分節音韻이 아니고 어떤 類의 韻律資質(prosodic feature)로 보았다. 그는 上古漢音의 音韻을 두 mora로 假定하고 強勢가 주어진 mora는 周圍의 子音에 따라 狹化 前舌, 中舌, 後舌등으로 代置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Caá→Ca-, C'aá→Cau- 등으로 變하는데 여기서 音聲的으로는 다음처럼 單母音으로 實現된다고 하였다.

E.G. Pulleyblank: Some new hypotheses concerning word families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I—II 1973) 參照

7) 漢音은 漢音에 對應되므로 漢音에 對應된 國音의 音價는 亂야겠다.  
詳論 後述

前者는 單字形이고 後者는 復合字形이다. 實際音은 復合音이지만 文字制定上 單字形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은 制定者가 單音처럼 意識한 데서 緣由되었겠으므로 字形上으로 보아 「여」와 「예」는 單音對 復音의 關係이다. 超分節音 資質(聲調)를 제쳐 두면 中世國語 音韻에 長母音은 別立되지 않으며 따라서 長母音字도 없다. 다 같은 短母音字이면 單音形字은 復音形字보다 短音으로 解釋된다. 現代國語에서도 「여」(jə)는 ei보다 짧게 印象된다.

捷解新語의 日本音 轉寫에 「여」와 「예」가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二種의 轉寫法을 쓴 것은 前者에 比해 後者가 聽取印象上 長音으로 본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漢字音을 論하자면 中古漢音의 音價考慮가 不可避하다. 本稿에서는 橋本萬太郎 博士의 再構音에 依據하고자 한다.<sup>8)</sup> 아직 學者間에는 B. Karlsgren의 再構音을 一般的으로 利用하나 이미 Karlsgren의 再構音에는 많은 批判이 加해져서 戰後의 많은 外國學者들은 새로운 再構音에 依據하고 있다. Karlsgren의 再構音은 그가 Maspero의 再構音이 唐初의 切韻指南에 依準하여 不合理하다고 非難한 것처럼 그도 切韻指掌圖와 廣韻에 依據하여 그 앞 時代의 切韻音系를 完璧하게 反映시키지 못했으며 內外轉의 音韻資質을 無視하고 韻尾子音에 對한 分充한 考慮가 없었기 때문에 煩雜한 母音體系를 假定했다.<sup>9)</sup> 그러나, Karlsgren의 再構音은 广대한 方言調查와 허다한 古音의 研究에 基礎하여 科學의 으로 構築하여 놓아서 대체로 그 再構音에 依據하여 무방한 程度이나 切韻時代以後에 많은 變化를 겪은 梗攝의 再構音은 最近 學者들의 새로운 再構音과는 거리가 멀어 그것에 依據할 수 有다.

切韻과 切韻音系에 가까운 韵圖인 韵鏡에 依據하여 內外轉의 音韻資質을 反映하고 새로운 韵尾子音을 設定한 橋本博士의 再構音은 首首이 잘 수 있는 合理的인 體系일 뿐 아니라, 筆者が 調查한 梗攝의 傳承漢字音으로 봐도 다른 것보다 더욱 合理的으로 여겨진다.

內外轉에 對한 說明은 切韻指掌圖 序文에 內轉은 喉牙脣舌音에는 二等

8) Hashimoto, Mantaro J.: Phonology of Ancient Chinese. Vols I & II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 Inc, #66~6256 (1965))

Mantaro J. Hashimoto: Retroflex ending in Ancient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I - II (1973))

橋本萬太郎：韓國漢字音과 中古中國語高口蓋韻尾(語學研究 9卷 1號(1973)) 參照  
9) B. Karlsgren: E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趙元任, 李芳桂譯：中國音韻學研究) 參照

韻이 없고 齒音에만 二等韻이 있으며 外轉에는 二等韻이 五音에 다 갖추어 있다고 說明하고 있으나 그것이 어떤 韵的 資質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橋本博士는 現代 北京 官話의 韵形에 外轉對 内轉의 後裔音의 核母가 a 對 e로 나타나는 事實과 e 核母는 前後의 介母 및 韵尾에 依해 變化를 겪고 있다는 事實을 들어 Compact(密集性)과 diffuse(擴散性)으로 說明되는 이를 韵形資質에서 tense(緊張性)과 lax(弛緩性)으로 說明을 하였다.<sup>10)</sup> 要컨대, 이들은 低音調資質(gravity)에 依한 對立이겠는데, 이와 같은 內外轉의 解明은 中古漢音의 許多한 重韻의 性格을 밝히게 되었다. 梗攝에 있어서도 庚 Ⅱ : 耕, 庚 Ⅲ : 清의 性格을 合理的으로 說明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口蓋鼻音 韵尾의 發見은 梗攝의 韵形變遷인 閉音化現象과 i介母의 消失을 보이는 异化作用現象을 合理的으로 解釋할 수 있다.<sup>11)</sup>

橋本博士의 中古漢音의 梗攝再構音은 다음과 같다.<sup>12)</sup>

| 韻等  | 外轉        |             | 内轉         |            |
|-----|-----------|-------------|------------|------------|
|     | 開         | 合           | 開          | 合          |
| I   | 庚 Ⅱ -ajn  | 庚 e Ⅱ -uajn | 耕 o -ɛŋ    | 耕 e -ueŋ   |
| III | 庚 Ⅲ -iaŋ  | 庚 e Ⅲ -üajŋ | 清 o Ⅲ -ieŋ | 清 e Ⅲ -üeŋ |
| IV  | 青 o Ⅳ -eŋ | 青 e Ⅳ -ueŋ  |            |            |

韻鏡에 記述된 梗攝의 體系는 다음처럼 되어 위의 中古漢音과는 다른 점이 있으나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清은 三四等復韻이고 四等韻은 青이다. 二張이 다 外轉뿐이다. 擬古的인 韵의 排列로서 二張으로 記述된 것 뿐으로 實上은 外轉이 아니라 内轉으로 統合된 것이 아닌가 싶다.

10) Mantaro J. Hashimoto: Notes on Mandarin Phonology (studies in general and Oriental linguistics. Tokyo (1970))

Mantaro J. Hashimoto: (1965) pp 323~345 前掲

11) Mantaro J. Hashimoto: Internal evidnal evidence for Ancient palatal endings in mandarin (Unicorn 4. Princeton University. (1971))

Hashimooto Mantaro J.: The hP'ags-pa transcription of Geng-she Syllables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4. 東京外國語大學)

Mantaro J. Hashimoto: (1965) 前掲書 등 參照

12) 이 表는 橋本의 前掲書 (1973)의 再構音에 依했다. 이 再構音은 다음論文에 도 실려있다.

橋本萬太郎: 韓國漢字音과 中古中國語 高口蓋韻尾(語學研究 9卷 1號)

(韻鏡斗 梗攝)

| 韻等  | 外轉    |       | 外轉    |      |
|-----|-------|-------|-------|------|
|     | 開     | 合     | 開     | 合    |
| I   | 庚。II  | 庚。II  | 耕。II  | 耕。II |
| III | 庚。III | 庚。III | 清。III |      |
| IV  | 清。IV  | 清。IV  | 青。IV  | 青。IV |

같은 宋代의 韵圖이자 마는 切韻指掌圖는 梗攝이 曾攝과 統合되어 中古漢音의 基本 變遷을 보여 준다.

(切韻指掌圖의 梗·曾攝)

| 韻等  | 開     |       | 合     |      |
|-----|-------|-------|-------|------|
|     | 音     | 例     | 音     | 例    |
| I   | 登。I   |       | 耕。I   | 庚。I  |
| II  | 耕。II  | 庚。II  | 登。II  |      |
| III | 蒸。III | 庚。III | 清。III | 耕。II |
| IV  | 青。IV  | 清。IV  | 青。IV  | 清。IV |

\* 下線 칸 것은 曾攝韻

傳承漢字音은 梗攝의 字音과 曾攝의 字音이 分別되어 두 摄間의 音의 差가 確然하다. 主된 傾向을 보이는 音을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 攝 | 韻等  | 開                |           | 合                |           |
|---|-----|------------------|-----------|------------------|-----------|
|   |     | 音                | 例         | 音                | 例         |
| 梗 | II  | 一 <sup>으</sup> 甲 | 院 隻 盲 生 猛 | 一 <sup>으</sup>   | 嶺 聰 宏 浩 嶼 |
|   |     | 一 <sup>으</sup> 乙 | 庚 脣 梗 町 漾 |                  |           |
| 禡 | III | 一 <sup>으</sup>   | 丙 省 敬 慶 咏 | 一 <sup>으</sup>   | 永 直 柄 命 痘 |
|   | IV  | 一 <sup>으</sup>   | 頤 痘 井 頤 領 | 一 <sup>으</sup>   | 營 頤 頤 禁 疫 |
| 曾 | I   | 一 <sup>으</sup>   | 登 能 背 等 檀 | 一 <sup>으</sup> 甲 | 或 感       |
|   |     |                  |           | 一 <sup>으</sup> 乙 | 國         |
| 攝 | III | 一 <sup>으</sup> 甲 | 升 蒸 濕 殘 興 |                  |           |
|   |     | 一 <sup>으</sup> 乙 |           |                  |           |

\* 두 음이 있을 때는 甲類, 乙類로 구별하고 서로 다른 摄에 吸收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除外한다. 入聲의 音은 따로 表示하지 않는다.

### Ⅲ 傳承漢字音의 梗攝 字音

本稿의 傳承漢字音이란 韻書音에 對立된 뜻으로 쓴다. 곤 詩, 賦 等 創作生治에 쓰여진 字音이 아니고 一般 國語生活에 使用하였던 傳來의 漢字音을 말하는 것으로 韵書音으로 볼 때는 一種의 俗化된 音이다.<sup>13)</sup> 그러므로 어느 意味로는 俗音을 重視하는 것이 되겠다.

資料로는 玉篇類(一般 漢字辭典)의 音을 取하기로 하되 玉篇에 따라 正俗音을 區分치 않기로 한다. 實上 어떤 玉篇 하나를 따른 傳承漢字音을 모은 것이라고 못박기는 힘든다. 訓蒙字會의 音이 傳承漢字音玉篇類의 代表的인 것으로 보아지지마는 字典編纂家인 崔世珍의 個人 識見에 따라 傳承漢字音이 바르게 選擇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代表的인 것은 譯官이었던 自身의 識見에 依하여 當時의 中國 時音을 許多히 收錄하고 있는 점이다.

|   |   |   |   |
|---|---|---|---|
| 蒜 | 션 | 刷 | 솨 |
| 胖 | 팡 | 椿 | 좡 |
| 蠻 | 찬 | 抓 | 쫘 |
| 鋪 | 푸 | 雙 | 좡 |

또 異本間에도 差異가 있어 後代板일수록 所謂 俗音을 取하고 있는데 傳承漢字音을 처음에는 無視한 대서 빚어진 訂正이라고 본다.<sup>14)</sup> 玉篇 編纂家들이 正音 俗音을 區分하고 正音에 置重하는 것은 韵書音을 따른 것으로 볼려는 意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傳承漢字音을 考察하려는 立場에서 보면 그런 正音은 別意義가 없다. 訓蒙字會나 類合에서 「莖」音을 「경」으로 달았으나 崔南善 新字典과 現代 玉篇에서는 「경」으로 달았는데 後者를 誤音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傳承漢字音의 解釋에 있어서 類推現象을 흔히 假定하는데, 筆者は 類推

13) 欲昌均 博士님은 韓國漢字音을 다음 三類型으로 類別하셨다.

- 玉篇에서 正音으로 規定된 것 (正音)
- 玉篇에서 俗音으로 規定된 것 (俗音)
- 韓國語에서 化石된 韓國語 (化石語)

本稿의 傳承漢字音은 上揭類型中 b型에 準하되 玉篇에서 正音으로 加註되자 않 는 全音을 包含하여 一般性을 띠 音型을 이룬다.

欲昌均: 現代韓國漢字音의 性格과 體系 (明大論文集二輯)

14) 李基文: 訓蒙字會 研究 參照

된 分明하고도 具體的인 證據가 없는 경우는 一切 類推現象으로 보지 않는다. 가령 聲符의 共通性 때문에 類推로 보인다면 오히려 古音이나 中國方言을 먼저 考慮해야 할 것이다. 類推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자만 그것이 公認되어 遺傳되는 일은 极히 드물다 漢字音의 경우 類推의 形成은 漢字音에 대한 無識의 所致이겠는데, 그것이 社會에 公認되기는 极히 어려운 일이며 漢文의 學習이라고 스승이나 典籍 없이 이루어지거나 아무 音이나 任意로 發音하여 通하는 것이 아니며 玉篇의 編纂家는 마른소리의 探索에 努力하기 마련이다. 傳承이란 오히려 確實한 遺傳이라고 본다.

이러한 諸點을 考慮하여 資料는 中世에서 傳承된 音을 表記한 崔南善의 新字典의 音을 爲主로 하고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現代 玉篇들의 音으로 補充하되 韻書類에서는 전혀 취하지 않기도 한다. 楊攝 漢字의 選擇은 陳澧의 切韻考에 收錄된 字를 利用한다. 廣韻에는 뒤에 追加된 字가 들어 있는데 陳澧는 이를 刪除했다. 追加된 字는 取치 않고서 하는 것은 他韻에서 統合된 音이 가져오는 混亂을 避하기 爲해서다.

切韻考에 收錄된 字로서 普通 玉篇에서 찾을 수 있는 字의 音을 類別하면 다음과 같다.

### 二等 開口(庚 II //耕)

-əɪŋ/-aɪk 防障帳彭閒磅盲鎗偷生省行猛督杏趙更膨誅／格客額琛塙宅伯垍  
陌噴辭啞／鏗韻莧爭琤崕盟幸靜櫻／麥策覈

-iəŋ/iək- 庚哼梗町檸幣更銳櫻／格赫／姪杌檸抨莧耿碰哽迹／幅蘆摘广獎  
縛責棟

-aŋ/-ak ○//垎○//哿

-iaŋ 犧陽悵

-ia 蹤

-oŋ 汗

-iŋ ○/○/浜

### 二等 合口(庚 I //耕)

-oɪŋ/-oik 獄外／號／轟泓宏／蠅蠻摺割獲

-oɑŋ/-oak 聰礦／○//○//赫

### 三等 開口(庚 III //清)

-aɪŋ/-aik 省生／柵索

-iəŋ/-iək 鄉警擎迎平明囊榮兄驚丙影敬慶競漸映詠／逆蟾／征聲成整聖盛  
輕頸并名精清情餉嬰盈瘞逞餅辟并請靜省勁遠領娘郢鄭摒併諂倩  
淨性政復令／隻釋螭彳擲辟僻擗積籍昔席石繹辟

|                |  |
|----------------|--|
| -ik            | 戟隙劇  |
| -aq/-ak        | 慶／構  |
| -iak           | ○／○//散   |
| -ia            | ○／○//賜   |
| -iŋ            | ○／○//聘   |
| 三等 合口(庚Ⅲ // 清) |  |
| -oŋ            | 橫  |
| -iəŋ/-iək      | 櫟皿永柄病命／○// 傾瓊辭系營頃頴／憂役                                  |
| -oaŋ           | 荒蝗   |
| 四等 開口(青)       |  |
| -iəŋ/-iək      | 經丁汀庭寧屏冥青星馨剗靈聲頂延顛轉嶺諷庠筭徑罄衍聽定<br>審曉腥鑿脰／零激鶴的荻怒歎壁屏冤疊續戚寂錫款檄醴 |

위 예의 音型을 表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 韻 等 | 類 別 | 庚 II 庚 III 青 IV     |                         | 耕    |             |
|-----|-----|---------------------|-------------------------|------|-------------|
|     |     | 開                   | 合                       | 開    | 合           |
| II  | 甲   | -ka/-ja-            | -oŋ/-iŋ-                | -iak | -oŋ/-oik    |
|     | 乙   | -ak<br>-iaŋ<br>-ia  | -oaŋ                    | -ak  | -oaŋ        |
|     | 丙   | -oŋ<br>-ik          |                         |      |             |
| III | 甲   | -ci/-lci-<br>(-iək) | -ki/-lgi-<br>(-oŋ/-oik) | -iək | -ci/-lci-   |
|     | 乙   | -aq/-ak             | -oaŋ                    |      | -iak<br>-ia |
|     | 丙   | -ik                 |                         |      | -iŋ         |
| IV  |     | -iŋ/-iək            | -iŋ/-iək                |      |             |

위 表의 等欄에 ( )를 한 것은 2 等韻에도 所屬되기도 한 것으로 齡音

에 限定되어 있다. 三等韻에서 變한 音으로 보이며<sup>15)</sup> 國語에 受容될 때 二等韻으로 받아 드렸거나 二等韻과 混同된 것으로 보인다.

上掲表의 Ⅱ, Ⅲ等韻을 살펴보면 數的으로 多數를 차지한 것은 甲類이고 그外 小數의 예는 그 核母로 보아 開母音 a와 閉母音 other i i o로兩分할 수 있는데, 前者를 乙類, 後者를 丙類로 類別하고 그 性格을 살펴보면 乙類는 原來 다른 두 音을 가졌던 것이 한 音에 吸收된 것이 대다수다.

|   |   |                        |
|---|---|------------------------|
| 龜 | 양 | 汝陽切, 乃庚切 (廣韻)          |
| 僕 | 창 | 褚羊切, 褚孟切 (廣韻)          |
| 場 | 창 | 與章切, 徒杏切 (廣韻)          |
| 踏 | 야 | 女略切, 女白切 (廣韻)          |
|   |   | 爾者切 (集韻)               |
| 𠀤 | 막 | 捕各切 (唐韻)      捕革切 (廣韻) |
| 靡 | 사 | 神夜切 (集韻)      食亦切 (廣韻) |
| 謹 | 황 | 胡光切 (集韻)      戶橫切 (廣韻) |
| 蝗 | 황 | 胡光切 (集韻)      戶盲切 (廣韻) |

다리는 「塔:各」과 같은 聲符와의 關係를 보이며 그 중에는 分明히 古音의 反映인 例도 있다. 「慶」(강)은 古詩의 叶韻으로 音「羌」(강)이었던 青音의 反映이겠다.<sup>16)</sup>

丙類는 核母 自體가 一般的인 「一의, 一여」와는 달리 甚한 變化를 겪은

15) 이들 齒音은 다음처럼 韻鏡과 廣韻에 二·三等兩道으로 각각 다른 音인데, 切韻指掌圖에서는 二等으로 나타나고 있다.

(韻鏡과 廣韻)

省: 二等(韻鏡) 三等(韻鏡, 所庚切)

生: 二等(韻鏡, 所庚切) 三等(所歌切)

柵: 二等(韻鏡) 三等(測較切)

索: 二等(韻鏡) 三等(山戴切)

※括弧내의 反切은 廣韻의 反切임.

廣韻에서는 거의 三等韻만으로 實現된 것이 韵鏡이나 切韻指掌圖에 二等韻으로 實現되었다는 것은 原來 三等韻이던 것이 二等韻으로, 한 等韻 上昇變化한 것을 들어낸다. 齒音의 韵等上의 上昇은 널리 許及되고 있다.

藤堂明保: 中國語言韻論 p. 196

俞昌均: 東國正韻研究, 研究篇 pp. 147~348

Mantaro J. Hashimoto: A hypothesis for a voiced retroflex fricative in Ancient Chinese (Unicorn, 6) 등 參照

16) 「慶」의 「강」慶은 世宗代까지 遷及되는 데 龍飛御天歌에서 「강」으로 發音된 것을 發見한 분은 徐在克教授다. 「慶」은 中古漢音으로는 \*kiaŋ으로 再構되는데, 이것이 「강」으로 遷存한 것을 橋本博士는 介母 ㄱ와 舌面元音 \* ㄴ와의 差化作用으로 생긴 것이라고 解釋하였다.

橋本萬太郎: (1973)前掲文 參照

(切韻指掌圖)

二等

三等

것을 露呈하고 後代 中國音을 受容한 느낌을 준다.

浜 풍 봉(四聲通解 所收 蒙音)

燈 등 持陵切(集韻)

淸 쟁 chéng (現代 北京音)<sup>17)</sup>

聘 빙 평(四聲通解 正音)

이들 甲乙丙類에 있어 乙丙類는一般的의 傳承音과는 性格이 다른例外者이므로 이를 除外하고 梗攝 傳承 漢字音의 等韻別 類型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韻等  | 開                       | 口 | 合                 |
|-----|-------------------------|---|-------------------|
| II  | -iaik<br>-ie-i<br>-iŋ-i |   | -oŋ/-oiŋ<br>-oi-k |
| III | -iŋ-i<br>-ie-i          |   | -iŋ/-ie-k         |
| IV  | -ie-i<br>-iŋ-i          |   | -iŋ/-ie-k         |

이로써 傳承漢字音의 梗攝은 外轉과 內轉은 分別되지 않으며, II. III. IV等의 差異가 전혀 빠지 않는 경우와 II等韻만은 II. IV等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 III. -iəŋ의 轉寫音

現代中國方言에서도 -iəŋ 또는 -iŋ(中國語 音韻論의으로는 -iəŋ으로 解釋됨)으로 變한 例가 흔하고 國語의 「一영」은 -iəŋ으로 解釋되므로 傳承 漢字音의 「一영」은 漢音 -iəŋ을 轉寫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으나 앞서 考察한 바처럼 外國音 e를 國音「영」으로 轉寫하고 있는 事實과 中國方言에서도 -iəŋ/-iŋ型 外에 -eŋ/-ɛŋ型이 存在하고 있는 事實을 考慮하면 國音「영」으로 轉寫 受容한 原漢音이 -eŋ이었을지 -iəŋ이었을지 確認해 보지 않으면 안되겠다.

國音「一영」이 漢音「-iəŋ」을 轉寫했다고 보는 경우는 「一영」(-iəŋ)의 i는 韵母의 介母를 轉寫한 것으로 解釋된다. 그런데, 漢音 三等韻 -ia는 國音에 -ə(一어)로 轉寫되어 그 介母는 國音 轉寫에 獨立 要素로 反映되지 않았다. 傳承漢字音에 있어서의 三等韻의 轉寫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단, 元來 核母가 a, a類로서 國音「아, 어」에 對應되는 것만 살펴본다.

17) 「·」字를 使用하고 있는 新字典의 「淸」(燈)은 「一영」으로 轉寫된 類와는 다른 것으로 「애」가 [ɛ]로 單母音化한 後의 中國 時音 chéng(燈)의 轉寫로 보인다. 「慶」의 古音에 대해서는 康熙字典 參照

止, 蟹, 梗, 通攝은 韻尾(-i, -ŋ, -n)에 同化, 黑化에 因한 變化가 일어 났으며 効攝은 韵尾 -u와 合쳐서 單音으로 實現되며 曾, 珍攝은 中古再構音과 거리가 멀어 어떤 變化가 介在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제치 둔다.

| 攝   | 開 口                 |        | 合 口                |       |
|-----|---------------------|--------|--------------------|-------|
|     | 中古漢音                | 國 音    | 中古漢音               | 國 音   |
| 歌 摄 |                     |        | 戈(-üa)             | 一아, 와 |
| 咸 摄 | 嚴(-iam).<br>塙(iam)  | 一엄, 一암 | 凡(-üam)            | 一언    |
| 山 摄 | 元(-ian),<br>仙(-ian) | 一연     | 元(-üan).<br>仙(uan) | 一원    |
| 宕 摄 | 陽(-iŋ)              | 一양     | 陽(-üŋ)             | 一央    |

※ 齒音 聲母下의 「一야, 一여……」등의 音은 聲母의 影響에 依한 特殊例로 본다.

上揭表의 國音이 中古漢音에 잘 對應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漢音 轉寫에 介母 i는 따로 反映되지 못했음을 본다. 다시 말하면, 漢音의 介母는 國音으로 轉寫되는 경우에 核母와 合쳐서 한 母音으로 轉寫되는 것이다.

四等韻에 母音性 介母 i를 推定하는 Karlgren과 같은 見解에 依하면 傳承漢字音은 「여」音으로 轉寫되어 있어 漢音의 i介母가 잘 反映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傳承漢字音의 四等韻轉寫를 보면 다음과 같다. 左便의 再構音은 Karlgren 類의 音이고 右便의 것은 橋本의 再構音이다.

| 攝   | 開 口                               |     | 合 口                                |          |
|-----|-----------------------------------|-----|------------------------------------|----------|
|     | 中古漢音                              | 國 音 | 中古漢音                               | 國 音      |
| 咸 摄 | (-iäm) 塙(-iam)<br>(-iem) 添(-em)   | 一엄  |                                    |          |
| 山 摄 | (iäan) 仙 (-ian)<br>(-ien) 先 (-en) | 一연  | (-iüän) 仙(-üan)<br>(-iuen) 先(-uen) | 一연       |
| 蟹 摄 | (-iei) 齡 (-ei)                    | 一예  | (-iüei) 齡 (-uei)                   | 一예<br>一유 |

三四等複韻인 塙(-iam)과 仙(-ian)은 中古漢音으로는 같은 音으로 再構되고 있으나 傳承漢字音은 區分 되어 있다. <sup>18)</sup>

18) 이러한 우리 漢音의 三四等複音韻의 三等과 四等音의 差異는 이미 指摘되어 있다. 河野六郎: 朝鮮漢字音の 研究 pp. 194~199 參照

|   | (開口)   | (合口) |
|---|--------|------|
| 塩 | III 一殷 |      |
|   | IV 一𠙴  | -əŋ  |
| 仙 | III 一𠙴 | -əŋ  |
|   | IV 一𠙴  | -əŋ  |

이러한事實은 國音에 轉寫된 漢音은 三等韻과 四等韻이 分立된 것을 들어내며 四等韻은 國音 轉寫音이 「어」아님 「여」로되어 다른 四等韻과 같으므로 그 核母는 다른 四等韻과 같은 「e」로 解釋된다. 곧

|   | (開口)     | (合口) |
|---|----------|------|
| 塩 | III -iam |      |
|   | IV -em   | -uem |
| 仙 | III -jan | -üan |
|   | IV -en   | -uen |

四等韻의 介母(i)에 對해서는 Karglen이 미쳐 注視하지 못한 事實을 들고 새로운 理論이 대두되었다. 切韻의 反切上字는 一二等韻과 四等韻에 같은 類의 字가 쓰이고 三等韻에 같은 類의字를 使用한다는 事實은 有坂秀世가 이미 指摘하였으며,<sup>19)</sup> 陸志韋는 切韻에는 兩類가 있어서 齊先蕭青添 等十八個 韵은 類가 되는데, 이 類에서는 原來 切韻에서 介母가 없으며 其外 三四等複韻系에서는 切韻系統에서 본래 介母를 갖추고 있다고 說明하였다.<sup>20)</sup> 戰後의 學者들은 四等韻의 i介母에 對해서는 否定的 立場에서며 橋本博士의 再構音에는 介母를 認定하지 않았다. 中古漢音의 再構音은 廣韻에 依據한 Karlgren類의 解釋보다 切韻에 立脚한 最近의 說이 合當하겠으므로 橋本의 再構音에 依함이 옳겠다. 上揭表 右便의 橋本의 再構音에 依하면 國音「여」(iə)는 介母(i)와는 關係 없는 것이겠다. 四等韻이 國音「여」(iə)의 i가 介母轉寫가 아님은 三等韻 轉寫에 介母는 反映되지 않았으며 効攝 等에서 韵尾母음이 獨自의 음으로 別立하여 二重音으로 轉寫되자 못하고 單音으로 轉寫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語事四等韻에 介母 i가 存在하였다 하드라도 國音에 i音을 가진 複合音으로 轉寫되지는 못할 것이다. 外國音 e音을 國音「여」(iə)로 轉寫한 事實을 考慮하면 上揭表에서 보는 것처럼 四等韻을 「여」로 轉寫한 것은 e음의 轉寫로 解釋된다.

따라서, 梗攝의 國音「一영」(-iəŋ)의 i로 介母의 轉寫로 볼 수 없으므로

19) 有坂秀世：國語音韻史の研究 pp. 354~357 參照

20) 陸志韋：古音說略 pp. 4~8 參照

前述한 外國音 轉寫의 例를 보아 -εŋ의 轉寫로 斷定된다. 現代中國方言으로 보아 -iεŋ/-iŋ 韻尾는 韵母에 따라 制約을 받는데 梗攝 二等韻의 卷舌音이라든가 脣音 聲母下에서는 噎牙音 聲母下에서처럼 普遍的으로 存在하지 않는다. 特히 北音의 후에인 北京官話에서는 脣音聲母를 가지는 梗攝韻母는 i介母를 가지지 않는다. 그린데 傳承漢字音에서는 梗攝 二等韻의 脣音 聲母下에 「一영」(-iεŋ) 韵尾가 오히려 普遍的으로 存在한다.

|    |      |
|----|------|
| 脣音 | 幫滂並明 |
| 例  | 透憇儻○ |

※ ○表는 存在할 수 있는 경우이나 筆者の 資料에서 例를 찾지 못한 것을 보임.

이려한 事實도 역시 國音「一영」音이 漢音-iεŋ 音의 轉寫가 아닌 한 證據로 보겠다. 이려한 梗攝 二等韻의 i介母의 分布를 가지고 볼 때 异例를 이루는 例는 日本 吳音이다. 梗攝 二等韻은 聲母의 어떤 制約도 없이 i介母를 가진 -io: 韵母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傳承漢字音의 경우와 같다. 그린데 日本 吳音의 梗攝과 容攝을 比較해 보면 興味로운 事實을 볼 수 있다.

| 攝     | 容攝  |      | 梗攝   |     |         |      |
|-------|-----|------|------|-----|---------|------|
| 韻(開口) | I 唐 | 陽Ⅲ/V | 庚Ⅱ   | 耕Ⅱ  | 庚Ⅲ 清Ⅲ/V | 青Ⅳ   |
| 中古漢音  | -aŋ | -iaŋ | -aŋ  | -eŋ | iaŋ ieŋ | -eŋ- |
| 吳音    | -o: | -o:  | -io: |     | -io:    | -io: |

上表에서 보듯이 日本 吳音에서 梗攝의 i는 韵等에 關係 없이 共通으로 存在하여 容攝의 -o:는 介母나 韵等에 關係 없음을 볼 수 있다. 容攝과 梗攝의 核母를 比較해 보면 i介母의 有無는 「a:o」와 같은 開閉母音의 差異를 들어내는 것으로 친작이 같다. 日本 吴音의 容梗攝의 韵母音은 漢音의 非圓脣母音을 韵尾子音 -o의 影響에 依하여 圓脣母音으로 받아 드린 것인데, o對 io의 io는 φ와 같은多少의 陰母音이고 前舌의 圓脣母音을 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日本 吴音은 傳承漢字音의 梗攝 二等音「一영」과 轉寫한 그 原音이 같은 것이 된다. 곧 φ의 平脣音은 e이기 때문에 다 같이 e를 轉寫한 것이 된다. 따라서 日本 吴音의 括音性도 漢音 原音과는 關係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겠다.

#### IV ea-i의 轉寫音

梗攝 二等韻의 傳承漢字音을 漢音-a-ia-ia-으로 보면 대단히 便利하고 特히 中古漢音의 梗攝 二等韻의 韵母를 -ea-으로 推定하는 Karlgren類의 見解에는 대단히 合理的이고 도움되는 解釋이 된다. 그렇게 說明하기 爲

해서는 韻尾에 出現한 i음의 性格을合理的으로 說明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學者間에 傳承漢字音의 i를 滑走音(glide)으로 說明하기도 하였으나 橋本 博士는 中古漢音再構에서 韵尾字音 -ŋ를 認定하므로써 -ŋ의 轉寫에서 빛어진 音이라고 더욱合理的으로 說明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筆者は 이 兩說이 다 不當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먼저 이 傳承漢字音 梗攝 二等韻의 -eɪŋ이 一定한 分布를 갖고 있다는 점을 注視하지 않으면 안된다. 前揭表에서 보듯이 이것이 二等韻에만 限定되어 있다. 이 i음을 滑走音으로 불려면 滑走音이 생겨날 音要件를 發見 確認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漢字音에서만<sup>21)</sup> 특히 梗攝에서 더욱이 二等韻에만 滑走 音이 發生할 要件은 發見할 수 없다. 原漢音에 滑走音이 存在한 것이 아니고 轉寫된 國音에 存在하는 것이라면 國語의 音韻現象에 有關한 것인데 國語에서 그러한 音韻環境에서 滑走音이 發生할 要件은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橋本 博士의 ip이ŋ을 轉寫한 것으로 보는 說은 口蓋鼻音 韵尾의 音韻資質을 생각할 때 그러한 可能性은 首肯이 갈 수 있는 說이다. 그러나, 다음 같은 諸事實은 -iŋ이 -ŋ을 轉寫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들어내고 있다.

첫째, 一定한 分布를 가지고 있는 점이다. -ŋ 韵尾는 梗攝의 全音이 가지는 韵尾이다. 그러므로 梗攝音 全般에 그러한 轉寫를 認定해야 한다. 그러나, -iəŋ으로 된 三等, 四等音에서는 그러한 i음의 轉寫를 볼 수 없다 구태여 여기서도 -ŋ을 -iŋ으로 轉寫했다고 보려면 -ieɪŋ(-iəŋ) → -iəŋ의 異化作用에 依하여 i음 하나가 消失한 것으로 說明이 되어야 하나 이런 경우 異化作用으로 -ŋ을 轉寫한 -iŋ의 i가 消失했다고는 볼 수 없다. 傳承漢字音에 「一形」을 전연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異化作用이 일어났다 하드라도 國音에 受容되던當時에 일어났다고 봐야 하겠는데, 受容되면 당시로는 ip은 合쳐서 -ŋ을 表音한 口蓋鼻音 -ŋ의 資質을 살리려고 애써서 -iŋ으로 轉寫하고 있는 立場에서는 韵尾音의 i는 아예 滑

21) 中國方言에 따라서는 -eɪŋ/-iŋ型이 있으나 이것들이 梗攝에 特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福州方言에서는 梗攝 韵母가 陽類에 -eɪŋ(二等), -iŋ(三·四等), 陰聲에 -aɪk(二等), -ɪk(三·四等)등의 傾向을 보이나, 曺攝 一等과 梗攝 二等 曹攝 三等과 梗攝 三四等이 同形이므로 梗攝 特有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梗攝과 緣이 먼 다른 韵攝에서도 그러한 複母音의 核母를 볼 수 있다.

福州 麻韻(-ia) -ei (車射赦社…)

福州 緝韻(-iep) -eɪk

福州 質韻(-iet) -eɪk

上揭例는 韵尾의 舌面性에 依해서 i가 發生한 것이 아님은勿論이다.

karlgren: 前揭書 方言字彙 參照

失을 생각할 수 없는것이고 消失했다면 介母 i가 消失했을 것이다.

-i(-iəi)→-e(iəi)

그뿐 아니라, 國音의 變遷으로 보아 iei (예)의 異化作用에 依한 變化를 보면 앞 i가 消失됨이 原則이다.

예 (iəi)→예 (əi)

이러한 現象은 單母音化라는 國語一般的인 現象에 제약될 것으로 國音에 受容된 以後의 變化는 이 原則에 따름이 原則이겠다.

둘째로, 洪武正韻譯訓, 四聲通解 等의 正音에서 梗攝과 曽攝의 韻母는 다음처럼 轉寫되어 있다.

梗攝 Ⅱ(一翁) : 庚阮曉盲生脖梗檉浜猛更謄格伯陌耕……

曾攝 Ⅰ(一翁) : 振登能朋曹等倣嶝贈增北墨則……

이것은 梗攝과 曾攝이 統合된 뒤의 音이나 같은 音이 한 두개가 아니고普遍의 現象을 보인다. -in을 -n을 轉寫한 것으로 본다면 梗攝이나 曾攝의 漢音 韵尾가 다 -n였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曾攝의 韵尾를 -n로 봄은 不當하다. 따라서 -in을 分離하여 -n의 轉寫로 볼 수 없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諸點으로 보아 傳承漢字音 梗攝의 韵尾는 -ŋ이고 그 韵部母音은 -ia-이다. 中古漢音 以來 梗攝 二等韻의 漢音은 單母音으로 推定되고 있으므로 漢音 單音을 國音으로는 複母音으로 轉寫한 것이 된다. 外國音 單母音을 複母音으로 轉寫했다는 事實은 그 外國音에 對應하는 國音 單母音이 없었다는 것을 들어내는 것이다. 序論에서 當時 國音에 存在하지 않았던 前舌單母音 e, ε등을 國音 複母音으로 轉寫한 事實을 確認했다. 이 경우 그와 꼭같은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면 國音에 複母音 (ia)으로 轉寫된 漢音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밝혀야겠다. 다른 外國音과의 對應에서 그 轉寫한 音을 밝힐 수 있는例를 찾을 수 없으나 다음 같은 暗示를 얻을 수 있다.

첫째, e를 iə(여)로 轉寫한 경우는 國音 複母音의 間音으로 外國音 單音을 轉寫한 것으로 解釋되는데, 이것도 같은 方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a와 i의 間音이겠으므로 그 前舌 單母音은 ε로 解釋된다.

둘째, 傳承漢字音에 나타난 開口音과 合口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開口) (合口)

- |     |    |    |
|-----|----|----|
| (A) | ai | oi |
| (B) | a  | oa |
| (C) | iə | εi |

上掲 (A), (B)를 살펴보면 合口介母 u는 잘 轉寫되지 못했다. (B)에서 는 u가 o로 되었으며 (C)에서는 合口介母 u는 전혀 反映되지 못했다. 그러나, 開口對合口音의 核母는 一致하고 있다. (B)는 a對a, (C)는 iə對iə이다. 이 事實로써 開口音과 合口音間의 核母는 一致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iə나 oi는 다 複母音으로 轉寫된 것으로 그것들이 間音으로 漢音을 轉寫할 것으로 본다면 oi는 漢音 ō의 轉寫로 解釋된다. 이 ō는 平脣音 e의 짹이 되는 圓脣音인데 그 圓脣性은 合口介母의 轉寫로 解釋되므로 그 圓脣性을 除去한 平脣音 e는 그 짹이 되는 開口音의 核母와 一致하는 것이겠다.

(開口) e (合口)  $\phi$ (圓脣+e)

이렇게 보면 vi는 e음의 轉寫이겠다.

셋째, 傅承漢字音의 梗攝, 曾攝音은 統合되기 以前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曾攝의 「登」韻은 一等韻의 資質을 그리고 梗攝의 「庚」, 「耕」韻  
은 二等韻의 音韻資質을多少라도 가졌다고 解釋되어야 한다.

中古漢音에 있어서一二等의 差異에 대해서 Karlsgren은 gravity(低音調性)으로 解釋하여 一等韻은 grave(低音調), 二等韻은 aigu(高音調)로 보았다.<sup>22)</sup> 最近에 S. E. Jaxontov와 E. G. Pullyblank 등이 定立한 見解로는 二等韻에 l 또는 r로 짐작되는 卷舌介母를 假定하고 있으나 中古漢音에 이 卷舌介母가 遺存韻을 가는 確然치 않다.<sup>23)</sup>

어쨌든 韻等間의 洪細的 見地로 볼 때<sup>24)</sup> 一等韻은 二等韻보다 小音일 수 없고 大音이든지 비슷한 것으로 봐야 하겠다. 橋本 博士가 再構한 中古漢音과 傅承漢字音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中古漢音) (傳承漢音)

|   |    |                 |   |
|---|----|-----------------|---|
| 登 | I  | A <sub>II</sub> | ə |
| 庚 | II | a <sub>II</sub> | e |
| 耕 | II | e <sub>II</sub> | ɛ |

22) B. Karlgren: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pp. 211~247 參照

23) Pulleyblank, Edwin G.: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I & II (Asia major, New series IX -1, 58 -142 & IX 2-206 -142) 參照

24) 一二等韻의 差에 對해서는 二等韻은 元來 類의 卷舌音介母를 가졌다고 하 드라도 中古漢音에 遺存한 痕跡을 찾을 수 없으므로 다음 같은 高低의 差異로 解釋해야겠다. 「今試以語音學術語釋之 則一二等皆無[1]介音 故其音大 三四等 皆有[1]介音 故其音細 同屬大音 而一等之元音較二等之元音略後略低 故有洪大與 次大之別…… 同屬細音 而三等之元音較四等之元音 略後略低 故有細與尤細之 別…… 然則四等之淮細 蓋指發元音時 日腔共鳴之大小而言也。」

(羅常培：漢語言學導論 pp. 44~45)

傳承漢字音은 登Ⅰ은 「옹」, 耕Ⅱ은 「肮」으로 中古漢音보다는 變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四聲通解의 蒙音 轉寫에서 國音 「으」의 對應音을 살펴보면 現代國語의 「으」(i)音과는 그 音價가 다르게 對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八思巴) (四聲通解)<sup>25)</sup>

|   |       |   |
|---|-------|---|
| 等 | dhig  | 등 |
| 曾 | dzhig | 종 |
| 賂 | tshig | 쭝 |

그런데, 八思巴의 漢音 轉寫音 -hig 은 -əŋ 으로 解釋되고 있다.<sup>26)</sup> 그러므로 蒙音 -hig-에 對應되는 國音 「으」는 ə에 對應되는 音價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中世國音에 ə에 對應되는 「어」音이 있었으므로 「으」音을 ə 音으로 解釋할 수 없고 ə에 가까운 ι音으로 解釋하여야 하겠다. 實上 現代語에서도 「으」의 音域은 相當히 넓은데, 中世 以前의 國音은 넓은 音域을 가졌거나 現代語의 「으」(i) 音價와 다른 ι였을지 모른다. 어쨌든 漢音을 轉寫한 「으」는 ι로 봐야 하겠다. 이렇게 보면 이 ə와 廣狹上에 높은 舌位의<sup>27)</sup> 音은 ε보다는 e가 되며 ε는 一等韻 ι보다 廣母音이 되어 不合理하다.

以上으로 傳承漢字音 自體에서 暗示되는 音은 어떤 面에서는 e로 보이고 어떤 面에서는 ε로 보인다.

序論에서 曾及한 것처럼 國語 自體의 性格으로 보아 「이」(複母音의 경우)는 「여」보다 長音이다. 長音으로 發音하면 舌面이 上升하여 短母音의 경우보다 狹化된 普通이므로<sup>28)</sup> 「이」(ii)를 ε의 長母音으로 보면 舌位는 ε와 비슷해서 脣圓音 ϕ와 짹이 될 수 있으며 同時에 音韻的으로는 ε에 屬하기 때문에 a와 i의 間音으로 轉寫되겠다. 이런 경우 洪武正韻譯訓, 四

25) 八思巴字의 釋音은 龍溪夫의 前揭書에 依함

26) 「One could also argue that "eing" stand just for [əŋ], since there was no ready-made symbol for this type of central vowel, among the hp'ags-pa letters. But this argument is equally untenable. The combination of "h" and "i" was consistently used to indicate this type of central vowel, and in no other type of syllables was the symbol "e" used for indicating a shwa-like vowel.」

27) Hashimoto, Mantaro J.: The ha'ags-pa Transcription of Geng-she syllables. p.18

姜信沆 博士는 通解 全般을 遵하여 보아 國音 「으」는 中國字音 推定音 ə와 對應關係를 보이고 있음을 確認하고 있다.

姜信沆: 前揭書 p.80 參照

蕭通解 등의 正音에 보이는 「의」도 역시 長音의 轉寫로 봐야 하며 「으」가 ㅓ로 解釋되므로 ㅓ:-로 解釋된다. 이런 見地에서 보면 國音으로 轉寫된 漢字音이 中古漢音에서 變化한 過程은 다음과 같이 된다.

(中古漢音) (傳承漢字) (譯訓 등 正音)

登 I      ʌŋ → ㅓŋ(으) → ㅓ:ŋ(으)  
庚 II      a → ε:ŋ(으)  
耕 II      ε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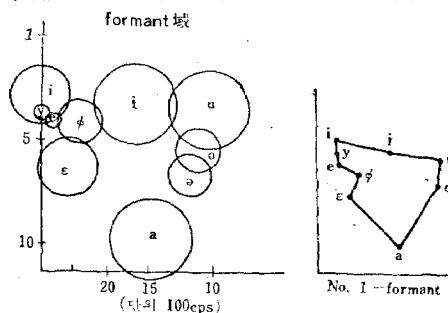
以上은 傳承漢字音과 國語 韻類의 性格이 暗示하는 점에 依하여 推定되는 被轉寫의 漢音이다. 傳承漢字音에 反映된 것과 같은 音系를 가진 것이 中國의 어떤 方言인가正確히 알 수 없으나 梗攝과 曺攝의 一二等韻과 三四等韻에 差異를 나타내는 中國方言으로 太谷 福州 方言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方 言 | 庚    |       |       | 曹    |       |
|-----|------|-------|-------|------|-------|
|     | II   | III   | IV    | I    | III   |
| 太 谷 | -ə̄  | -īɔ̄ | -īɔ̄ | -ə̄  | -īɔ̄ |
| 福 州 | -εiŋ | -iŋ   | -iŋ   | -εiŋ | -iŋ   |

이것들은 梗攝과 曹攝이 統合되어 一二等의 差異가 없어진 모습이다.

上掲方言에서 一二等과 三四等의 差異는 前者가 低母音而지 後舌母音이고 後者가 高母音而지 中舌母音으로 低後對高前의 差異이다. 傳承漢字音 梗攝의 二等韻對三四等의 差異는 ε(의)對e(어)로 中國方言에서 보는 것과 같은 對立을 보겠다.

그런데, 現代國語의 性格으로는 φ音은 中舌쪽으로 들어간 音聲資質을 가진다. 아래의 黃希榮 教授의 音響實驗報에서도 確認된다.<sup>29)</sup>



28) 英語의 경우, ivo 長母音은 短母音보다 한정로 舌位가 높다.

Daniel Jones: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p.64 參照

29) 黃希榮: Internal Structure of Absolute Phoneme & Formant Chart Analysis of Vowel (韓國言語文學 5) 參照

이런 경우 꽈에 짜이 되는 ε:란 꽈만큼 中舌 쪽으로 들어간 音聲資質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e音의 轉寫로 보이는 一영(-eng)의 合口音이 없다는 事實에서도 推測된다. 傳承漢字音은 東國正韻 以後의 韻書音의 한글 轉寫와는 달라 國音에 常用되는 音으로 轉寫한 것인데, 中世國語의 母音은 다음과 같다.

• - ㅏ ㅗ ㅜ ㅕ ㅑ ㅕ ㅓ ㅕ ㅕ ㅕ

파귀. ㅓ니 ㅚ ㅐ ㅔ ㅟ ㅖ ㅕ

새 ㅔ ㅒ ㅖ

따라서 아래의 (A)와 같은 轉寫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國語에 存在하는 가까운 音韻 (B)로 轉寫한 것이다.

| (開口) | (合) | (口) |       |               |
|------|-----|-----|-------|---------------|
| e:   | 의   | ue: | (A) 워 | (B) 외(φ~圓脣+e) |
| a    | 아   | ua  | 와     | 와(oa~圓脣母音+a)  |
| e    | 여   | ue  | 엮     | 여(e~e)        |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외(φ)가 同調音位置의 e音 e(여)의 짜이 되지 않고 ε:의 짜으로 轉寫된 점이다.

이것은 우선 現代音으로 생각해서 國語의 e 調音位置에서는 φ가 나지 않고 그보다 中舌的으로 移動된 調音位置에서 φ가 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다른 理由가 없으면 音韻上으로 φ는 e의 짜이 되겠다. 그러나, 만약 φ의 調音 position에 ε:음이 있다면 φ는 同調音位置에 있는 ε:음의 圓脣音 짜이 되겠다. 따라서, ε:의 position은 國音 φ의 position에서 調音된 事實을暗示한다.

이렇게 되면 「여」(e)는 圓脣音 짜을 잃고 孤立되겠으므로 「아」對「와」처럼 그와 結合할 수 있는 圓脣音을 찾게 되겠으나 「워, 외」등이 國音에는 存在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開口音 形態로 轉寫한 것이겠다.

이렇게 보는 데는 中世語 以前의 「외」(oi)의 間音의 position가 現代語 「외」(φ)의 調音 position과 같았을까 하는 問題가 남는다. 國語의 前舌單母音 e, ε, φ, y 등이 近代에 들어와 發生한 것이지만 前代의 音韻과는 關係 없이 發生한 것은 아니다. 그 前代에 合綴되어 使用된 複母音의 產物이다.

애(ai)>애(ε)

에(ei)>에(e)

외(oi)>외(φ)

## 위(ui)>위(y)

中世語에서 보드라도 母音結合은 任意로운 것이 아니고 一定 形態가 存在하는 것으로 上掲例의 「애, 애, 의, 위」의 複母音은 現代國語의 單母音  $\epsilon$ , e,  $\phi$ , y에 準하는 一定 單位의 音韻 구성을 한 것이다. 이들로부터 生成된 後代의 韻音이란 이들이 갖는 어떤 音韻資質의 遺傳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複母音 發音이 오늘날 單母音으로 化한 音과 같은 間音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發音되었겠으며 그래서 그런 間音의 單母音이 產生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複母音의 調音位置는 現代語의 單母音과 비슷했을 것이다.

梗攝 韵母의 頭部母音의 音價를 살펴자면 다 같이 口蓋性韻尾를 가졌고 特히 傳承漢字音에서 다 같이 「이」母音을 가진 蟹攝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되겠다. 蟹攝의 차세한 考察은 本稿에서 다룬 격률이 없으므로 簡單히 一二等韻의 國音轉寫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sup>30)</sup> 蟹攝의 一二等의 傳承漢字音은 다음과 같은 甲乙丙類가 있다.

|    | (開口)   | (合口)   |
|----|--------|--------|
| 甲類 | 一애(ai) | 一예(ai) |
| 乙類 | 一의(ia) | 一외(ei) |
| 丙類 | 一이(ai) | 一외(ei) |

※ 丙類는 主로 脣音 聲母를 가진 韵母音이다.

이以外 極少數의 合口音에 奈(oai) 위(ui) 등의 例가 있으나 一般的의 傾向을 띠지 못하므로 後代에 受容된 音으로 보겠다. 「一애」와 「一의」는 重韻의 差異를 들어내는 것으로 보는 學者도 있으나<sup>31)</sup> 首肯이 칠만한 一定한 傾向을 들어내지 못하고 서로 섞여 있으므로 重韻間의 區別이 存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위에 提示한 開口音과 合口音을 보면 우선 特異한 것은 甲類는 合口音이 開口音 그대로 轉寫되어 있는 점이다. 江, 容, 梗諸攝의 경우로 보아 「아」(a)의 合口音은 「와」(oa)로 轉寫되었으므로 당연히 「애」의 合口音은 「왜」(oai)겠다.

그러나, 그러한 轉寫는例外이고 開口音 「애」와 같은 形態인 것이 一般的의 傾向을 이루고 있다. 合口介母가 實現되지 못하거나 消失될 音韻條件를 發見하지 못하겠으므로 轉寫上에 그 原因이 있겠는데 漢音의 國音轉

30) 具體的인 例는 「朴炳采：前掲書 蟹攝條」 등을 參照하기 바람

31) 朴炳采：前掲書 p.128~134 參照

寫에는當時 國語音韻의 制約을 받은 점을考慮하면 이것도 역시 그려한데 原因이 있으리라고 본다. 萬若 當時 國音에 「왜」(oai)라는 复合母音이 存在하였다면 「왜」를 두고 「이」(ai)로 轉寫할리가 없으므로 傳承漢字音이 受容되면 當時에는 三重複合音 「왜」(oai), 「왜」(uei) 같은 音韻이 國音에 없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國語 音韻史面에서 더욱 考證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조 하나의 特殊한 것은 合口音이 「와」(oi)로 轉寫된 例가 한 傾向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앞서 考察한 梗攝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開口音 「의」의 突이 되는 合口音이겠다.

(開口)  
의(ei)

(合口)  
와(oi)

蟹攝은 i韻尾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韵母의 核母로 開口音은 「으」(ə), 合口音은 「오」(o)로 보나 筆者は 開口音의 核母를 「의」, 合口音의 核母를 「왜」로 본다. 그것은 짓째, 「의」(ei)는 「에」(eii), 「와」(oi)는 「왜」(oii)의 縮音으로 볼 수 있다. 音節末에 重復되는 同音의 母音은 消失됨이 國語一般的인 現象이다. 둘째, 傳承漢字音의 開合口音의 轉寫로 보아 合口介母는 輕視하는 경향을 떠우나 核母는 重視하여 開合口間에 核母는 一致한다. ə와, o의 平脣音  $\emptyset$ 는 一致하는 音韻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의」(ei)와 「와」(oi)는 각각 漢音 e 또는 ε와  $\emptyset$ 를 轉寫한 것으로 解釋된다.

上掲 丙類의 脣音 聲母를 가진 合口音의 경우는 事情이 다르다. 合口介母 u가 存在하지 않는 漢音 自體의 音韻性格에 依한 것 같다.<sup>32)</sup>

以上으로 梗攝과 同一한 音韻條件를 가진 口蓋性 韵尾를 가진 蟹攝에서 도 韵尾의 同化作用을 입어 前舌母音化한 脣을 볼 수 있다.

#### V. 介母 i의 轉寫와 韵尾의 消失時期

梗攝 二等韻의 傳承漢字音은 「一영」(εŋ)과 「一영」(eŋ) 두 系列이 存在하는데, 이러한 現象은 傳承漢字音의 다른 韻에서도 엿보이고 一蟹攝 一二等韻에 애甲, 익乙, 曾攝 三等韻에 응甲, 응乙 등 一中國方言이나 日本漢字音에서도 梗攝에 두 類型이 엿보인다.

梗攝의 三四等韻은 「一영」한 型뿐이므로 梗攝에 두 音系가 反映된 것이라 볼 때 甲, 乙 어느 音系서도 三四等韻은 다 같이 「一영」이었다고 解釋

32) 朴炳采: 前掲書 p. p. 118~120 參照

된다.

梗攝의 甲, 乙 두 型은 中國方言이나 日本漢字音 등에서 다음 같은 同型類를 볼 수 있다.

### 甲類

| (傳承漢字音) |      |      | (日本漢音) |     |     | (中國方言) |      |     |     |
|---------|------|------|--------|-----|-----|--------|------|-----|-----|
| II      | III  | IV   | II     | III | IV  |        | II   | III | IV  |
| -ia-    | -e-  | -ea- | -o:    | -ei | -ei | 太<br>福 | -i-  | -i- | -i- |
| (en)    | (en) | (en) |        |     |     | 谷<br>州 | -eij | -iŋ | -iŋ |

### 乙類

| (傳承漢字音) |      |      | (日本吳音) |      |      | (中國汕頭方言) |     |     |     |
|---------|------|------|--------|------|------|----------|-----|-----|-----|
| II      | III  | IV   | II     | III  | IV   |          | II  | III | IV  |
| -ei-    | -e-  | -ea- | -io:   | -io: | -io: |          | -eŋ | -eŋ | -eŋ |
| (en)    | (en) | (en) |        |      |      |          |     |     |     |

※ 로마자 II III IV는 韻等을 보임

이와 같은 甲, 乙 두 類型의 存在는 傳承漢字音이 한 音系가 一時에 受容되어 形成된 것이 아니라 두 音系를 다른 時期에 受容한 것을 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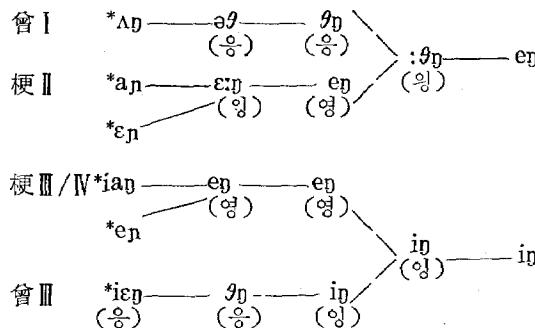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中古 以來의 漢音을 轉寫한 넓은 時期에 결친相當한 資料를 갖고 있는 셈이다. 宋代로 遷及 할 것으로 생각되는 傳承漢字音,<sup>33)</sup> 元代의 蒙古韻略(1269~1297), 明初의 洪武正韻, 그 後의 譯音 등의 資料가 있다. 蒙古韻略을 翻音한 것은 따로 傳하지 않으나 崔世珍의 四聲通解에 收錄되어 있으며 最近 翁昌均 博士께서 再構하였다. 洪武正韻은 그 譯訓인 洪武正韻譯訓이 이미 鮮初에 이루어져 그 斷片이 傳하여 그 모습을 알 수 있다. 洪武正韻은 南方音을反映시키고 摭古的인 面을 가진 人工的으로 綜合 整理한 韵書로 聲母에서 濁音 分別, 入聲의 定立 등은 當時의 北方音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前代의 禮部韻略에 比하면 그 韵部의 大改革이 이루어진 것으로 完全히 人工的인 것이 아니고 當時의 時音에 어느 程度根據를 둔 것을 疑心할 수 없다. 特히 宋濂의 序文에 中原雅音에 根據하였다고 하였으나, 音系의 合理的인 整理, 傳統韻書의 體系 模倣에

33) 우리나라 漢字音의 母胎說은 學者에 따라 다른 見解가 있으나 그 時期가 적어도 宋代 또는 그 以前으로 遷及한 것은 分明한 듯하다.

依한 擬古性은 作用하였다 하더라도 當時 時音을 檢討으로 無視하고 이루 어진 것이 아닐 것 같다. 洪武正韻은 어느 한 地方의 音系를 反映한 것이 아니라 合理的인 體系化와 綜合的인 整理로 보이므로 個個音은 경우에 따라 現實音과 멀다 하더라도 그 대체적인 傾向은 어느 時期의 現實音을 反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梗攝과 曽攝은 그韻部音이 中古音의  $a \Delta e$  등 低母音에서 高母音 쪽으로變化하여 統合된 것인데, 國音으로 轉寫된 資料에서 低母音으로부터 高母音으로 排列하면 다음 같은 變化過程이 들어난다. 傳承漢字音은, 本稿에서 推定한 音을 取하여, 洪武正韻譯訓과 現代北京官話는 少數의 例를 無視하고一般的의 傾向을 明 것을 보인다.

(中古漢音) (傳承音甲) (傳承音乙) (洪武正韻譯) (北京官話)



위 表의 變化過程에서 들어나지 않는 것은 三四等韻에 存在하였을 介母 i와 韵尾子音 n의 口蓋性資質이다. 앞서 言及한 것처럼 漢音의 國音 轉寫에서는 介母는 따로 反映되지 못하였으며 核母와 합쳐 한 音으로 轉寫되며 核母가多少 閉母音으로 變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리고, 國音으로 轉寫된 여러 資料에서 梗攝의 韵尾子音 n의 口蓋性을反映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결국 -n 音은 國音으로 -ŋ으로 一律的으로受容한 것을 드러낸다.

介母 i의 轉寫와 -n韻尾의 消失時期를 推理해 보기로 한다.

橋本 博士는 口蓋韻尾에 依한 梗攝 二等韻의 變化를 假定하고 다음 같은 公式으로 說明하였다. <sup>34)</sup>

$a \rightarrow \varepsilon / _{-} \text{Palatal ending}$

34) Mantaro J. Hashimoto: Internal Evidence for Ancient Chinese Palatal Endings. 參照

→ 0/V —

그리고, 이段階의 梗攝과 曾攝의 韻尾를 다음처럼 假定하였다. 이것은 上揭表 傳承漢字音 甲類와 비슷한 모습이다.

| (橋本의 推定音)    | (傳承漢字音甲)      | (傳承漢字音乙)      |
|--------------|---------------|---------------|
| I εŋ         | I əŋ          | I əŋ          |
| II εŋ        | II εŋ         | II εŋ         |
| III iεŋ      | 梗 III / IV εŋ | 梗 III / IV əŋ |
| III / IV iεŋ | 曾 III əŋ      | 曾 III iŋ      |
| IV εŋ        | IV εŋ         | IV εŋ         |

梗攝 三等韻 漢音(橋本 推定音) iεŋ이 εŋ으로 對應하고 曾攝 三等音 漢音(橋本 推定音) iεŋ이 əŋ으로 對應하여 漢音 ie가 e 또는 ə로 轉寫된 것은 介母 i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앞서 考察한 바처럼 中古漢音 ia는 國音 ə로 轉寫되고 있는事實을 考慮하면 充分히 首肯된다.

| (漢 音)     | (國音轉寫) |
|-----------|--------|
| 梗 II iεŋ  | εŋ     |
| 曾 III iεŋ | əŋ     |

그리고, 傳承漢字音 乙類에서는 甲類보다 梗攝 二等韻이 εŋ에서 e로, 曾攝 三等韻이 əŋ에서 i로 變했는데, 이것은 梗攝 二等韻에 介母 i가 發生하고 曾攝 三等韻의 核母가 e로 變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고보아진다.

括弧內 는傳承漢字音의 轉寫音임

|                |            |
|----------------|------------|
| 梗 II εŋ (εŋ)   | → iεŋ (εŋ) |
| 曾 III iεŋ (əŋ) | → iεŋ (iŋ) |

曾, 梗 兩攝의 統合은 韵部母音뿐 아니라 韵尾子音이 同一音으로 變한 때문에 可能하게 될 것 이겠으므로 洪武正韻譯訓音 段階에서는 消失한 것으로 解釋하여야 하겠다.